직업계고 취업 · 진학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청, 전북도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설명회

사업 신청서 제출… 선정 결고 내달 말 교육부서 발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일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에서 전북도와 공동으로 '2023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직업계고 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계고의 취업과 진학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것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북도와 14개 시군 교육협력 및 기업지원 부서,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직업교육 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해 거버넌스 형성, 지역·특화산업 분석을 통한 맞춤형 고졸 인재 양성, 정주여건 마련 및 직업교육 정책개발 등이 있다.

이는 △지역 내 전략·특화산업, 지역에 산업벨트가 형성된 산업 또는 해당 산업의 업계 대표 기업이 소재하고 협력이 가능한 산업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고 인근 대학·기업·유관기관이 심화·후학습 과정 운영에 협력 가능한 산업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업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산업분야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선정 결과는 2월 말 교육부에서 발표한다. 한편,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선정되면 3년간 고졸 인재 양성 역할을 하게 되며, 올해 광역단위는 10억원, 기초단위는 5억원을 지원받는다. /장은성 기자

강원대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등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7개교 총장단이 최근 아리조나주립대학을 찾아 관계자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美서 국가거점대학 혁신성장 방안 찾다

전북대 등 거점국립대총장협 총장단, 아리조나주립대학 등 찾아 협력방안 논의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합의 · 올 하반기부터 'KNU10 사무국' 설치 추진키로

강원대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등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7개교 총장단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국가거점대학의 혁신성장 방안을 벤치마킹하고 돌아왔다고 전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SFSU)과 아리조나주립대학(ASU) 등을 방문해 거점국립대학과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수 및 학생 교류 등을 합의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거뒀다.

또한 거점국립대 학생들의 교육 질 제고와 공동 사업 발굴에 대한 혁신적 의견 공유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KNU10 사무국' 설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단은 방문 기간 중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을 찾아 Lynn Mahoney SFSU 총장을 비롯해 국제담당 부총장 등을 접견하고 거점국립대학 학생들의 어학연수를 비롯한 맞춤형 교육 협력, 그리고 구체적인 등록비용과 숙소 등 세부 사항까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아리조나주립대학을 방문한 총장단은 이 대학 Julia Rosen 부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ASU의 개혁 및 혁신 성과, 비즈니스 스쿨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대학의 대표적인 융합연구 기관인 바이오디자인 연구소를 방문했다. 특히 대학개혁을 위한 기관(UDI:University)의 Minu 부원장을 통해 지난 20년간 수행한 ASU의 개혁 성과와 과정을 소개받고, 한국 대학들의 개혁 과정에 대한 논의의 시간도 가졌다.

KNU10 대학들과 ASU는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 혁신 및 온라인 교육 과정 확대 방안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특히 교수 및 학생을 주기적으로 파견, ASU와 혁신성과를 함께 공유·평가하기로 해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노벨상 수상자인 로렌스 교수로부터 시작된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도 방문해 현재 연구원들로부터 시설과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고, 이 연구에서 거점국립대학 교수와 학생 파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장단은 방문 중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도 참가해 거점국립대학들이 내놓은 우수 기술을 함께 돌아보고, 효과적인 대학 기술이전 및 홍보를 위해 국가거점국립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CES 2023에서 서울대는 대학 기술을 활용한 대표 스타트업 12개 기업과 향후 창업이 예상되는 우수 실험실의 6개 우수 기술을 전시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관을 운영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 전북대는 '혈전탐지 이미징 시스템'과 '저탄소 소고기 검증 플랫폼' 등 2건의 첨단 바이오기술을 선보여 타임·US뉴스·AP통신 등 20여 매체에 잇따라 보도될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제주대는 반려견 웨어러블(wearable) IoT(사물인터넷)기기 스타트업과 함께 반려견 헬스케어 전용장비 등을 선보여 'CES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계획 설명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일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통해 '2023학년도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계획'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 유아의 차별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3~5세 유아로, 1인당 13만5,000원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유아 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비, 학부모가 납부하는 공통교육과정에 필요한 경비 등이다.

지원방법은 사립유치원 지급 기준에 맞춰 소요 예산액을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유치원별 소요 예산을 취합해 검토 후 다시 유치원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향후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 지도·점검단을 구성해 출결 관리 현황, 집행의 적절성, 유아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현화 학교교육과장은 "전북의 모든 유아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2022학년도 2학기 강의 우수 교원 표창장 수여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18일 대학 본부 총장실에서 2022학년도 2학기 강의 우수 교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 교원은 지난 2학기 217개 교과목을 수강한 재학생의 수업 만족도 강의 평가와 강의 우수 교원 선정 기준에 따라 김용재(국어교육과 교수), 탁병주(수학교육과 조교수), 이종화(영어교육과 교수), 김평(컴퓨터교육과 교수) 등 총 4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교수-학습지도·방법 개선과 학생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에 헌신하는 등 학생 교육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것을 높게 평가받았다.

박병춘 총장은 "양질의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열심히 강의해 준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내년에도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강의로 수업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 도내 학부모단체들

"교사 인권침해 대책 권고 이행을"

도교육청 "감사 진행 중… 결과 나오는대로 조치"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는 1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교육감은 교사의 비교육적 행위·인권침해 대책 권고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학생 간 성폭력에 대해 생활지도를 했으나,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불만을 품어 같은 반 친구들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판단은 다르다고 했다.

조사 결과,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 특히 심의위원회는 교육감에게 해당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재 권고는 이행되지 않고 임시 조치로 담임 교체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성폭력 가·피해자로 알려진 두 학생들에 대해 왜곡된 사실관계가 유포되며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이미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그리고 해당 교사 등을 일일이 만나 면담을 실시했다며, 현재 도교육청 감사과에서 감사가 진행중이라며, 추후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이 내려질 경우 전주교육지원청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유학생 위한 '따뜻한 담요 나눔' 행사

전주비전대학교(정상모 총장)는 유학생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따뜻한 담요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 행사는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김비아 등에서 온 유학생들이 한국의 겨울 날씨로 인해 힘들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정미숙(유)전흥아름코리아 대표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정미숙 대표, 이형권 전주대 특임교수, 이효숙 국제교류원 원장 및 유학생들이 등이 참석했다.

정미숙 대표는 "한국에 꿈을 갖고 찾아온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면 좋겠다"고 말했다.

커마우(미얀마 유학생, 국제협력기술과 1년) 학생은 "더운 나라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처음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 따뜻한 사랑과 담요 덕분에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효숙 원장은 "유학생들에게 나눠준 사랑이 더 큰 감사와 나눔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순창도서관, 도서관 애칭 공모

31일까지 신청 접수… 5월 중 재개관 예정

전북도교육청순창도서관(관장 김영자)은 오는 31일까지 도서관에 어울리는 애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서관 회원이나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순창군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순창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공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도서관 사무실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선정할 예정이며, 최우수 1명에게는 20만원, 우수작 4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18일 순창도서관에 따르면 유아 및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청소년 문화공간, 개방형학습실, 휴게실 등 지상 4층 규모로 조성, 화장실 공사 및 재개관 준비작업을 거쳐 5월 중 재개관할 예정이다.

김영자 관장은 "복합교육문화공간의 도서관 특성을 살린 의미있는 애칭이 선정되길 바란다"며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단계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함께한 순창도서관의 애칭 공모에 순창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도서관 누리집(https://lib.jbe.go.kr/sclib)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063-652-099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통생활문화 체험하러 오세요'

전북대 생활대학, 설 맞아 아동 대상 체험… '황실' 주제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학장 최병숙)이 설 명절을 맞아 19일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홀에서 아동 대상 전통생활문화 체험 놀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는 국내 최초 '황실'을 주제로 한 것으로, 전통문화를 현대에서 K-생활문화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의식주 생활 속에 담아내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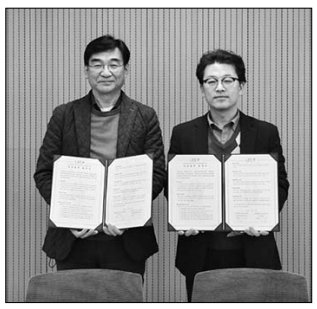
특히 우리 전통의 모습을 서민과 양반, 왕에서 황실로 한 차원 격상시켜 전통생활문화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의미도 크다. 또한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협조로 랜디어린이집과 주변의 직장어린이집 아이들 그리고 굿네이버스와 함께 하는 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놀이 체험의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지역에 기여하고 있다.

체험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이 황실이라는 전통을 느낄 수 있도록 '황실마당에서의 놀이'로 전통생활문화를 담았다. 황실로 들어가는 해와 달이 있는 출입문을 통과하면 황실마당과 대한제국의 황실 분위기를 담은 공간이 펼쳐지고, 황제, 황태자, 황후, 옹주의 예쁜 옷을 입어볼 수 있다. 새해 색다른 사진도 찍어볼 숭 있고, 황실 옷의 내용이 담긴 팔찌머니 만들기, 소원등을 만들고 새해 소원을 빌어보기, 딱지치기를 하며 전통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최병숙 생활대학장은 "설 명절 놀이로 대한제국 황실의 아동용 한복을 입어보거나 놀이의 소재에 포함시켜 보는 것은 최초이자, 실험적이고 발전적인 첫 걸음"이라며 "황실 공간을 디자인하고 황실의 옷을 제작하며 놀이를 기획한 생활과학대학의 힘이 세계적인 전통생활문화 인재를 키우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전북대-충북대 모빌리티 분야 협력 강화

전북대학교 LINC3.0사업단 친환경미래모빌리티센터(센터장 이덕진)와 충북대학교 LINC3.0사업단 스마트카센터(센터장 기석철)가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7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협약식을 갖고,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자율지능 특수차량 등 미래자동차 산업이 포함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 핵심 기술 공동 개발과 연구동향 및 기술정보, 인프라 공유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덕진 센터장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전북과 충북 지역에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이라며 "대학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관련 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이루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지역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